

조계종 직할교구 사무처 설치

교구 중무행정·포교사업 등 지원...업무효율 향상 기대

조계종(총무원장 자관)이 직할교구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사무처를 마련한다.

조계종 직할교구상임위원회는 12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장에서 회의를 열고 직할교구 중무행정을 지원할 사무처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직할교구상임위 의장 자관 스님은 "종단의 제1교구본사인 조계사에 특별한 말사가 너무 많아 운영이 힘든 형편이다"며 "직할교구와의 민활한 연락과 정보교환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사무처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부부장 원화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직할교구 사무처는 교구를 활성화 하고 교구 소속 스님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교구출발 당시 제도 미비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이며, 각 직할교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단합하고 포교·사회·장학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175회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원화 스님은 "총무원과 직할교구의 업무를 연결해주는 부서가 필요하다"며 "교구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구 사할 스님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주지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조계종 총무부가 마련한 '직할교구 사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사무처는 직할교구의 효율적 운영을 돕고, 포교 및 문화사업 등 지원 목적을 지닌다. 또한 사무처는 직할교구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시행 등의 업무를 맡으며 매일 직할운영활동 상황을 총무원장에 보고하게 된다. 사무처장은 조계종 총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총무원은 현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위치한 민원실의 업무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이곳에 직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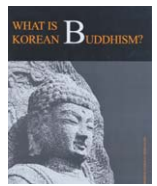
조계종(총무원장 자관)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 위치한 종합민원실을 대폭 축소하고, 이 자리에 직할교구 사무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교구 사무처를 둔다는 방침이다. 직할교구상임위는 1월 중 직할교구회의를 개최하고 결의된 안건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스님들은 "현재 제1교구본사인 조계사에 470여 개에

달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다"며 "앞으로는 제1교구를 독립하고, 각 지역 사찰들이 지역 교구본사에 등록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여수령 기자**

한국불교 소개 영문 책자
진흥원, 미주지역에 지원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12월 한달동안 한국 불교를 해외에 알리기 위한 국제 포교사업 시행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발간된 영문 한국불교 소개 책자를 미주지역에 지원했다.

책 이름은 '한국불교란 무엇인가'란 내용을 담은 <WHAT IS KOREAN BUDDHISM?>(조계종출판사 편)이다. 진흥원은 이 책 600부를 미국 뉴욕사원연합회와 남가주 불교사원연합회를 통해 회원 사찰 40여 곳에 전달했다. **김주일 기자**

"신정아 학위인정 팩스 진본" 美 예일대서 발급 사실 확인

신정아씨 교수 임용 당시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가 미국 예일대로부터 받은 신씨의 학력확인 팩스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일대는 지난 7월, 동국대로부터 신씨의 학력증명을 요청한 팩스를 받지 않았고, 학력증명을 해준 적도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예일대는 11월 29일, 부총장 겸 법무실장 수잔 카니 명의의 문서에서 2005년 9월 22일에 동국대에서 보낸 팩스가 대학원 부학장 파멜라 서마이스터가 서명해 보낸 진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려졌다.

그간 동국대는 예일대의 잘못된 발표로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정아씨 비호세력'이라는 도덕적 비난을 받음과 동시에 교원 채용시 학력검증 과정을 허술하게 운영해 왔다는 의심받음 등 공신력이 크게 훼손됐다.

동국대가 12월 27일 개최한 기

재회견에서 한진수 경영부총장은 "예일대의 학력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신정아의 채용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예일대의 잘못으로 실추된 동국대의 명예회복을 위해 법적조치에 나설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예일대 대학원 부학장이 해 위하학력자인 신씨의 박사 학위를 인정하는 공문을 동국대에 보낸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예일대는 이번 착오가 '바빠서 생긴 일(in the rush of business)'이라고 변명했다.

한편, 조의연 경영관리실장은 "신정아씨 학력증명사실을 확인했던 파멜라 서마이스터씨에게 지난 7월 이메일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며 "이번 해프닝이 예일대의 단순한 행정착오는 아닐 것"이라는 말로 묘한 여운을 남겼다. **조동섭 기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정확히" 태고종 부당공제 근절 동참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12월 26일 소속계 연합정신과 관련, 각 사찰에 기부금 영수증을 사실관계에 근거해 정확히 발급할 것을 당부했다. 태고종은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부당공제 근절을 위한 정부 방침에 부응해 이같이 결정했다.

태고종은 기부액을 높여 기제하는 허위 영수증 작성, 백지 영수증 교부 등을 자제할 것과 아울러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반드시 작성해 일정한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세부관청의 요청 시 대장을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태고종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시 ▲실제 기부액과 일치하는 영수증 발급 ▲발급대장 작성 및 이를 사찰에 비치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사본 보관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해 각 중무원에 시달렸다. **김주일 기자**

전등사 지역민에 관람료 면제

강화 전등사(주지 혜경)가 2008년 1월 1일부터 신분증을 소지한 강화군민에 대해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전등사는 12월 24일 "2008년 1월 1일부터 신분증을 소지한 강화군민에 대해서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혜경 스님은 "지역 사찰로서 역할을 다하고 지역민과 호흡을 함께 하기 위하여 강화군민에 대한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연태 기자**

東大 교육·의료·징계 분과위 구성

제235회 이사회 개최...분교 운동·수영장 매입 결의도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영배)는 12월 21일 대학 본관 5층 교무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제235회 이사회를 열고 자산 매각·매입, 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결의했다.

이사회는 현재 국유지로 등록돼 있는 동국대 분교 운동장과 수영장을 매입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산19번지 34필지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는 ▲교육위원회 ▲의료위원회 ▲징계위원회(교원·직원·일반직원재심위원회) 등 분과

위원회의 위원을 배정·위촉했다. 교육위원회는 영담·정남·수인 스님, 유광진·이재창 이사, 성철 스님, 이홍섭 감사 등 7명, 의료위원회는 성관·정련·성타·혜립·정호 스님, 전순표 이사, 상운 스님, 이홍섭 감사 등 8명으로 구성됐다.

교원징계위원회에는 영담·성관 스님과 이재창 이사, 한희원 법대 교수, 이명천 서울학사지원본부장, 이시영 경주학사지원본부장, 고유환 입학처장 등 7명이 임명됐다. **김주일 기자**

포교사교시 2월 17일 실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종)은 제13회 일반포교사 자격고시를 2008년 2월 17일 실시한다.

포교사교시는 불교적 소양과 전문적인 포교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 양성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 국내는 17일 오전 9시부터 각 지역 고

등에서, 미국 LA는 16일 오후 4시

(현지시간)부터 LA 관공사에서 치러진다. 원서접수는 2008년 1월 21~24일 까지 진행되며,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조계종 포교원이나 불교대학 홈페이지에 다운 받을 수 있다.

응시료는 1인 5만원, 최종합격자 발표 및 품수식은 8월 중순 경 실시된다.(02)2011-1894 **여수령 기자**



대한불교 선종 '제3대 중정 효담 스님 추대 대법회'

대한불교 선종은 12월 25일 경북 포항시 청송읍 웨딩홀에서 '제3대 중정 효담 스님 추대 및 종단 사단법인 인가 축하 대법회'를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중정 효담 스님은 "법인을 정부에서 허가한 이유는 불교종교와 불교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많은 중생들을 돌보라는 의미와 중생제도를 잘 하라는 뜻"이라며 "이런 좋은 마음과 의지가 바로 우리 종단의 설립 정신"이라고 법문했다. **김주일 기자**

진공청소 · 물걸레청소 · 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들지 않고 청소하는 **로봇청소기-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제품 구입 **1588-7402** 인터넷 검색창에 **www.mamirobot.co.kr**

₩275,000 (소비자기격) 입금계좌:기업은행 018-072448-01-015 [예금주:정승리]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박혜열 인쇄인: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디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예시아문 www.yosiamun.com

부산지사: (051)632-0064 대구지사: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055)355-7472 울산지사: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055)746-9778 충청지사: (043)732-5560 광주지사: (062)268-1508 전북지사: (063)910-5199 영주지사: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謹賀新年

무자년, 새해 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호국참회 관음기도 도량
삼각산 도선사
주 지 선묵 혜자

청담문도회, 청담장학문화재단, 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학교법인 청담학원
강북청소년수련관, 사부대중 일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전화: (02) 993-3161~3 팩스: (02) 993-3164 홈페이지: www.dosunsa.or.kr

우리 '화계사' 대중은 삼가 부처님 전에 두 손 모으고 무자년에는 이렇게 살 것을 서원합니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
내가 먼저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을,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를 부처로 삼기는 마음으로 살 것을."

대한불교 三角山華溪寺

회 주 설 정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주 지 수 경	국제선원 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4시 (내·외국인)
국제선원	철야삼천배: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9시-새벽 4시
신도회장 승석 구	선우회 철야정진: 매주 토요일 오후 9시-새벽 3시
차호법행의	수선회참선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사부대 중일 등	어린이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청년회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합창단

- 신도교육 -

기본교육과정	매주 일요일 오후 3시-5시
불교 주간1학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
대학 주간2학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4시
주말반1학년	매주 토요일 오후 5시-7시
경전연구반	매주 화요일 오후 1시-3시
교양과정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www.hwagyesa.org